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새해 광주 수출 ‘순항’

1월 29.4% 증가…무역수지 6억9400만달러 흑자 전남 주력산업 부진에 1억2800만달러 흑자 그쳐

새해 광주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호조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반면 전남 수출은 주력산업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투자 및 수출 감소를 이어갔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47억4000만 달러. 수입은 3.5% 감소한 39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2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7억4100만 달러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4% 증가한 15억200만 달러. 수입은 36.9% 증가한 8억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5억7000만 달러보다 21.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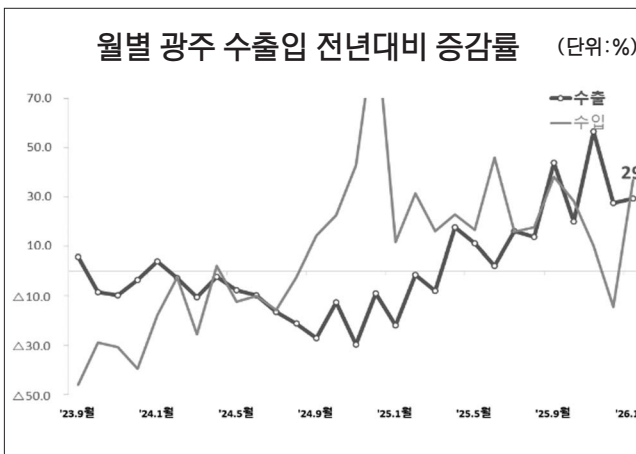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67.1%), 수송장비 (48.8%) 등은 증가했고 가전제품 (-17.0%), 고무타이어 및 튜브 (-15.6%), 기계류와 정밀기기 (-2.3)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 (-8.3%)은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중국 (30.0%)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남미 (65.3%), 동남아 (56.9%), 유럽연합 (39.3%) 등도 늘었다.

수입은 반도체 (45.3%), 가전제품 (32.5%), 화공품 (10.7%), 기계류 (1.6%), 기타 자본재 (25.9%) 등이 모두 증가했다.

전남지역 지난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32억3900만 달러. 수입은 10.4% 감소한 31억1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2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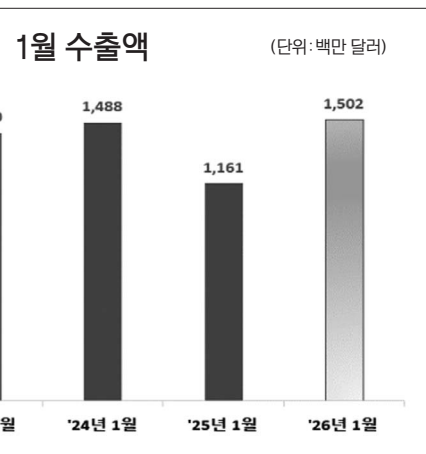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1억7100만 달러보다 25.2%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 수출에서 기계류와 정밀기기 (88.3%) 등은 증가했지만 수송장비 (-47.1%), 화공품 (-7.8%), 철강제품 (-4.9%), 석유제품 (-2.9%) 등 비중이 큰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10.1%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미국이 7.2% 감소 전환했다.



수입은 석유제품 (9.8%) 이 증가하고 석탄 (-24.4%), 원유 (-17.6%), 화공품 (-17.5%), 철광 (-3.3%) 등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유기농 말차 1t 독일 수출

MZ세대 중심 소비 증가…유럽 프리미엄시장 공략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에서 생산한 유기농 말차 1t을 독일로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말차는 향신료 성분과 건강 기능성 이미지가 부각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음료·베이커리·건강식품 원료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세계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독일은 친환경·유기농 식품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으로, 프리미엄 말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응해 △해의 인종 및 수출 규제 대응 △제다·분말화 가공 장비 지원 △위생·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바이어 맞춤형 기술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수출은 2022년 전남산 유기농 앞녹차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 말차 연속 선전에 이어 올해 추가 수출까지 이어진 성과다. 단발성 거래를 넘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업체인 월드터 황인후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2022년 독일 첫 수출 이후 꾸준한 품질관리를 통해 독일 바이어와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재무문과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글로벌 말차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용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 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에서 생산한 유기농 말차 1t을 독일로 수출했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에 박서홍

농협중앙회는 최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전무이사(부회장)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기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현장과 중앙을 아우르는 실무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농협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책임자로 꼽히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협구조 혁신과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상호금융대표이사에는 윤성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가 선임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 쇄도 접수 나흘만에 173만건 돌파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바우처 지원에 신청이 대거 몰리며 현장의 체감 수요가 그대로 드러났다.

접수 개시 나흘 만에 신청 건수가 170만건을 넘어서는 등 고정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12일까지 총 173만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행 초기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를 동안 110만건이 접수됐다. 11일부터는 바우처 지급이 시작돼 12일까지 약 100만명에게 총 2500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지원 규모는 5790억원이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신장 화재공제료 등 고정성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지원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존 정보를 자동 불러오기 할 수 있도록 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시, 수출기업에 30억 융자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시장 개척·해외인증 획득 등 대상

광주시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5년 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단 최근 2개년(2024~2025)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회 참가, 해외규제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이다.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를 받을 때 연 2.12%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된다. 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연 1.6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곡성 토란 활용한 ‘토란 조롱이떡’ 상품화

전남농기원, 아린 맛 줄인 가공기술 적용…농가소득 향상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곡성의 대표 특화작목인 토란의 소비 확대를 위해 ‘토란 조롱이떡’을 개발·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곡성 토란은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지리적표시 제108호로 지정된 전남의 대표 특산물이다.

토란에는 칼륨과 칼슘 등 무기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갈락탄과 뮤신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해 혈압조절과 변비 개선, 항당뇨, 면역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란은 대부분 원물 형태로 유통돼 토란국으로 한정돼 소비되고, 특유의 아린 맛으로 인해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곡성군농업기



술센터와 공동으로 2년간 토란의 아린 맛을 줄이고 조리 편의성을 높인 가공 소재와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그 성과로 ‘토란 조롱이떡’을 올해 선보이게 됐다.

제품은 화순군 소재 떡 생산업체인 ‘심은영농조합법인(심은순씨)’에서 생산해 현재 자사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향후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생산·수출·건설 늘었지만 소비는 ‘주춤’

전남은 내수·건설 동반 부진

광주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이 두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소비는 감소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전자부품 (50.6%), 전기장비 (36.1%)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자전기 (44.9%), 자동차 등 기계류 (24.2%)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6% 증가했고 수입은 전자전기 (-16.4%) 등과 함께 14.3%가 감소했다.

건설투자에서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

(2만4163.1%)과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기타 (1450.0%)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년 동월 대비 74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 (-3.0%)과 대형 마트 (-9.3%)가 모두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8000명 줄었으나 임금근로자가 1만8400명 늘며 전년 동월 보다 1만4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5.9%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0%), 제1차금속 (-6.4%)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이와 함께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이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기타 (-70.5%)와 주거용 (-8.5%)가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7%가 줄었다.

고용 또한 임금근로자는 9900명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가 1만9200명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93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6.4%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해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쳤다. 수입은 원유 (-8.3%)를 중심으로 0.2% 감소했으며 수출은 선박 등 기계류 (45.6%), 석유제품 (9.1%)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

신협, 청년·무주택자 주거안정 금융 지원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약…목돈마련 금융상품 연계

신협중앙회는 최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안정을 위

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신협은 지난해 말 기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협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금융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사회주택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필요 시 금융교육·상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사전에 협약한 지역신협과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이 적금 가입 시 해당 신협이 제공하는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회가 금리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경우 중앙회가 동일한 3.5%를 추가 지원해 총 7%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이 거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